

# 도어즈 아트페어 2011

CULTURE

2011 / 11 / 22

ART IN CULTURE

11. 25 ~ 27 서울 임페리얼 팰리스 호텔 8층



도어즈 아트페어 2010 전시 장면

서울 논현동 임페리얼 팰리스호텔에서 올해로 2회를 맞은 도어즈 아트페어가 열린다. 호텔 객실을 무대로 펼쳐지는 도어즈 아트페어는 미술시장의 다원화와 함께 유망한 신진작가를 집중적으로 소개한다. 실제로 집안에 걸기에 좋을 법한 중간 또는 소품 크기의 작품이 주를 이루며, 호텔 객실 내 가구, 집기를 그대로 이용해 작품 설치를 하기 때문에 집이나 사무실 등 생활공간에 걸렸을 때의 느낌을 알 수 있다는 게 특징이다. 올해에는 국내외 갤러리 35개가 참여하여 40여 개의 호텔 방을 전시공간으로 꾸민다. 200여 명의 작가의 1,200 여점의 작품이 전시된다.

특별전으로 아트인컬처의 '동방의 요괴들'이 참여하는 <On the Doors>, 평론가 윤진섭이 소셜네트워크 페이스북을 바탕으로

모집한 <국제상상대학 특별전>, 첫 번째 기업 참여전으로 가방 브랜드 '쌈소나이트'가 참여한 <쌈소나이트\_기업참여특별전> 등이 마련된다. 또한 어린이 프로그램 '포춘쿠키 프로젝트 (Fortune Cookies Project)'는 강지혜 작가가 어린이들과 함께하는 워크숍 프로젝트로 미술을 통해 밝고 희망적인 메시지를 창조할 예정이다. 입장료 일반 10,000원(만 18세 이하 5,000원).

특별전

동방의 요괴들\_On the Doors



신기철 <Restless Heart Syndrome #005> 75×60cm 디지털 피크먼트 프린트 2009

<아트인컬처>가 운영하는 젊은 작가 발굴 육성 프로그램 '동방의 요괴들'의 특별전. 이 전시에는 곽상원 김대한 송송 신기철 하명은 5명의 작가가 참여한다. 이들은 회화, 설치, 사진 등 각기 다른 매체를 실험한다. 그들이 구사하는 작품 제작상의 방법론은 다소 익숙해 보일 수 있으나, 작가들이 사회와 대면하며 작품에 담아낸 주제의식의 세밀함과 긴장감은 날이 서있다. 요괴들의 '만남과 충돌의 에너지'는 젊은 작가 발굴을 목표로 설립된 도어즈 아트페어와 강렬한 시너지 효과를 낼 것으로 기대를 모은다.

곽상원은 각종 매스미디어의 파편화된 기사를 재조합하고 재가공한다. 그는 자신의 작품이 현실을 바라보는 '가상의 망원경적 시각'을 담고 있다고 말한다. 화면에 등장하는 출처와 맥락이 불분명한 이질적인 대상들은 덩그러니 붓질로 그려져 새로운 의미를 생성한다. 하명은 미술사의 명작 속 인물과 장면을 전략적으로 차용한다. 그는 이를 팝아트 스타일로 표현, 입체이면서 동시에 평면인 '변형 캔버스'로 제작한다. 그는 자신의

작품을 '이중 구조의 의미가 있는 개념적 팝아트'라 설명한다. 송승은 보다 폭넓은 음악, 애니메이션, 영화, 게임 등의 대중매체를 작품에 끌어들인다. 그는 실재하지 않지만 사람들을 홀리게 하는 힘을 지닌 '가상현실'에 주목한다. 그의 작품은 가상현실의 매력을 증명하는 증거물이자, 작가의 정체성을 드러내는 또 다른 분신이다. 김대환은 현대인의 코드화된 감성의 구조를 해체한다. 그는 규격화된 이미지를 표현하기 알맞은 아크릴, A4용지, 서류가방 등과 같은 일반 사무용품이나 공산품을 재료 삼는다. 명품, 외모지상주의, 반려동물, 예술 등 거대담론을 구조화한 다양한 감성 코드가 그의 작품에서 투명하게 재조립된다. 신기철은 현대인의 '불안증후군'을 문제 삼는다. 그는 삶의 풍경 곳곳에 깔린 불안과 두려움의 심리적 속성을 미술사의 오래된 정물 도상을 빌어 사진에 담아낸다. 금방이라도 쏟아질 것처럼 테이블 가장자리에 놓인 컵과 깨진 조각상, 거울, 촛불, 과일이 '불안의 도상'으로 섬세하게 연출된다.

서울시 강남구 논현동 248-7

임피리얼 팰리스 호텔 1층 아케이드 M105호

[www.doorsartfair.com](http://www.doorsartfair.com/)(<http://www.doorsartfair.com/>)

070-8836-8718